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POTTYMOUTH AND STOOPID

가제 : 욕쟁이와 멍청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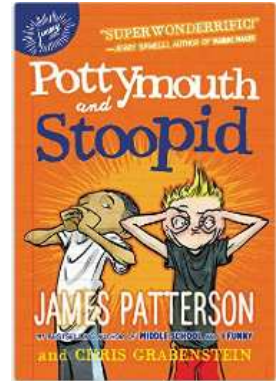
저자 : James Patterson and Chris Grabenstein

출판사: jimmy Patterson

발행일: 2017년 6월 9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 “가볍지만 위대하고, 웃기면서 정직하다. (우리 집에 사는) 어떤 아이의 말에 따르면, 이 이야기가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대로 쓴 것 같단다.” – 뉴베리 메달 수상자, 『*The Crossover*』의 작가 크웨임 알렉산더
- * “오랫동안 따돌림에 시달린 두 괴짜 소년에 관한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 따돌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준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Raising Cain*』의 작가 마이클 톰슨

초등학교에 들어오기도 전부터 따라다니는 별명 때문에 하루도 학교 생활이 편할 날이 없었던 마이클과 데이빗은, 이대로 못 살겠다며 전교생이 모인 중학교 강당 무대에 나섰다. 멀쩡한 이름을 놔두고 ‘욕쟁이’와 ‘멍청이’로 불리며 사사건건 놀림을 받는 것에 지긋지긋해진 두 친구는, 마음 단단히 먹고 자신들의 사연을 들려주기로 결심했다. 짓궂은 아이들은 그렇다 치고,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까지 그런 별명을 당연한 듯 불러대는 건 좀 심하지 않나? 마이클과 데이빗은 이 해묵은 고정관념을 단단히 뿌리 뽑기로 다짐했다. 대체 무슨 사연으로 7학년 밖에 안 된 아이들에게 이렇게 심한 별명이 따라다니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자.

데이빗이 ‘멍청이’가 된 건 유치원 때의 일이었다. 웃 잘 입고 말 잘 듣는 아이들만 예뻐하던 선생님이 그 조건에 딱 맞는 카야를 무릎에 앉히고 동화책을 읽는 동안, 데이빗은 파란색 물감을 가지고 한창 노는 중이었다. 그 때 마이클과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됐다. “똥이다!”라고 외치며 다가온 마이클은, 데이빗이 종이에 그려놓은 구불구불한 파란 선을 보더니 “파란 똥이다!”라며 굉장히 좋아했다. 같이 신이 난 데이빗은 파란 물감을 선생님 준비물 서랍에서 더 가져다가 온갖 “똥”을 그려댔다. 흥이 오를 대로 오른 두 아이는 색깔을 바꿔보기로 하고, 다시 서랍에서 빨간 물감을 가져왔다. 어라? 근데 뚜껑이 열리지 않았다. 데이빗은 집에서 유리병 뚜껑이 안 열리면 아빠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을 떠올렸다. 그래! 문에다 내리 찍으면 돼! 물감 서랍에다 대고 광,

물감 병을 내리찍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너무 세게 쳐서 병이 다 깨지고 말았다. 그 바람에 뚜껑이 헐겁게 닫힌 파란 물감 병도 쓰러지고, 그 주변은 파란색 빨간색 물감으로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다. 카야가 그 광경을 보고, 곧장 선생님께 일러바쳤다. 그걸로도 모자라 고향을 치기 시작했다. “데이빗, 넌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아이야. 멍청이, 멍청이, 머어어머멍청이!!!!” 그때부터, 데이빗과 하필 계속 같은 반에 배정된 카야는 학년이 바뀔 때마다 주변 친구들에게 “재 이름은 멍청이”라고 알리고 다녔다. 카야는 똑똑하고 말을 워낙 잘해서, 희한하게도 모두들 그 말을 믿고 다 같이 데이빗을 이름 대신 멍청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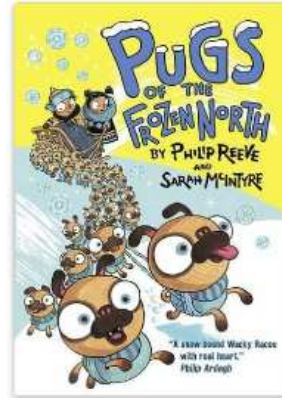
마이클이 “욕쟁이”가 된 건 어찌 보면 데이빗 탓도 있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수학 선생님께서 불러 나온 마이클은 칠판 앞에서 뺄셈을 해내지 못해 우물쭈물 힘들어했다. 카야가 여지 없이 비웃기 시작하고, 반 아이들이 킁킁대며 놀려대자 마이클이 폭발해버렸다. 벌떡 자리에서 일어난 마이클은 왜 데이빗을 놀리냐고 고향을 치더니, 선생님과 아이들을 향해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요상한 단어를 랩처럼 내뱉기 시작했다! 깜짝 놀란 선생님은 말 버릇이 그게 뭐냐며, “너 입만 열면 욕이구나!”라고 꾸짖었고 그 말을 냉큼 접수한 아이들은 마이클에게 “욕쟁이”라는 별명을 붙여버렸다. 얼마 후, 마이클을 따라 집에 가본 데이빗은 왜 친구가 그토록 이상한 말을 하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태어나 한 번도 부모님 얼굴을 본 적이 없는 마이클은 양부모 집에 살고 있었는데, 직업이 없어 늘 집에 있는 그 양부모님의 입에서는 어른들이 못 보게 하는 TV 프로그램에서나 나올 법한 살벌한 욕이 줄줄 흘러나왔다. 차마 그 욕을 그대로 따라 하지는 못하고, 마이클이 아주 창의적으로 말을 변형한 것이라는 걸, 세상에서 데이빗 딱 한 사람만 이해할 수 있었다.

억울함을 호소하러 나선 두 친구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두 사람이 그간 겪은 이야기들은 배꼽 잡는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선사하고, 꼭 몸을 다치게 하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게 한다.

<저자 소개>

제임스 패터슨(James Patterson)은 2015년 내셔널 북 어워드에서 ‘미국 문학 공로상(Literarian Award for Outstanding Service to the American Literary Community)’을 수상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품이 가장 많은 작가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인물이기도 하다. 『Middle School』, 『I Funny』, 『Jacky Ha- Ha』 현재까지 출간된 책의 판매량을 종합하면 전 세계적으로 총 3억 5천만 권이 넘는다. 스물네 개 칼리지와 대학교에 400권이 넘는 교육학 전공서를 제공하고, 개별 서점, 학교 도서관 등에 학생들이 읽을 수 있도록 수백만 권이 넘는 책을 기증했다.

제목 : PUGS OF THE FROZEN NORTH
/ JINKS & O'HARE FUNFAIR REPAIR
가제 : 공공 추운 북극에 간 퍼그
/ 징크스와 오헤어의 놀이공원 구출작전
저자 : Philip Reeve and Sarah McIntyre
출판사: OUP Oxford(공통)
발행일: 2016년 9월 1일(공통)
분량 : 224 페이지(공통)
장르 : YA 소설



- * “독자를 몰입하게 하는 풍부한 글에 어마어마한 재미까지. 그림책이 얼마나 위대한 수준에 이를 수 있는지 제대로 보여주는 책” - 「가디언,」
- * “에너지, 모험, 코미디가 넘쳐 흐른다.” - 「북 셀러」

1. 공공 추운 북극에 간 퍼그(PUGS OF THE FROZEN NORTH)

세계 곳곳 항구에 들러 물건을 사고파는 배, ‘럭키 스타’ 호의 막내 선원 쉐는 뭔가 깨지는 소리에 잠에서 깬다. 밖으로 나가보니, 바다 한 가운데를 지나던 배의 밑에서 바닷물이 얼어버렸다! 주변이 공공 얼어버려 배가 딱딱한 얼음에 둘러 싸인 상태였다. 게다가 엄청난 속도로 물이 얼면서, 얼음이 낡은 갑판을 부수고 들어오기 직전이었다. 선실에서 선원들이 휘둥그런 눈을 하고 뛰쳐 나오고, 다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하는데 배가 기우뚱 기울어버렸다. 이대로 있다가는 날카로운 얼음에 배가 부서지고 차가운 겨울 바다에 그대로 빠질 판국이었다. 선장은 배를 버리고 달아나자고 소리치고, 한 대 밖에 없는 스노모빌에 한 명씩 몸을 싣는다. 그런데 배에는 마지막 항구에서 싣고 온 상품들이 가득했다. 2000벌이나 되는 점퍼와 함께, 66마리의 꼬맹이 퍼그가 있었다!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화물 칸에서 쏟아져 나온 퍼그들은 정신 없이 다른 방향으로 뛰어가버리고, 스노모빌에 올라탄 쉐는 마음이 급해진다. 바보 같은 퍼그들은 불려도 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개들이 얼어버리면 어쩌나, 걱정이 된 쉐는 선장에게 잠깐 기다려달라고 하고, 혼자 스노모빌에서 내려 퍼그들에게 다가간다. 얼른 상자에 담아 돌아서려는데, 모빌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분명히 엔진 소리는 들리는데, 개보다 자신이 우선인 성질 급한 선장이 출발해버린 것이 분명했다. 결국 쉐는 66마리의 퍼그, 2000벌의 점퍼와 함께 공공 얼어버린 바닷물 위에 덩그러니 남겨지고 말았다.

정처 없이 헤매던 쉐는 북극 마을에 사는 소녀, 시카와 우연히 만난다. 그리고 시카에게서 바닷물이 얼어버린 건 평생 한 번 찾아오는 ‘진짜 겨울’에 일어나는 현상이고, 이 겨울에는 ‘스노우파더’라 불리는 신비한 존재와 만나기 위한 썰매 경주가 벌어진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 듣는다. 1등을 한 팀만 스노우파더와 만날 수 있는데, 그는 무엇이든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단다! 함께 팀을 이루고 경기에 참가하기로 한 시카와 쉐. 그런데 시카의 할아버지가 몰던 썰매는 있는데, 썰매를 끌 개가 없었다... 없을까? 두 사람은 꼬맹이 퍼그 66마리의 짧고 통통한 다리 264개를 믿어보기로 하고,

특별한 경주를 준비한다. 그러나 소원을 이루려고 찾아온 경쟁자들이 결코 만만치 않다. 엉뚱한 길을 가르쳐주는 못된 악당부터 전설의 괴물 크라켄, 50가지 다양한 눈으로 '눈 국수'를 만들어내는 예티 족까지, 과연 두 사람과 66마리의 퍼그는 별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스노우파더와 만날 수 있을까? 기막힌 상상력과 유쾌한 웃음이 가득한 모험이 펼쳐진다.

2. 징크스와 오헤어의 놀이공원 구출작전(JINKS & O'HARE FUNFAIR REPAIR)

'달님 놀이동산'에 사는 에밀리는 이리저리 빼격대는 놀이기구를 똑딱 고치는 2인조 수리공 징크스, 오헤어와 함께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달님 놀이동산에서는 끝이 보이지 않는 빙글빙글 미끄럼틀은 물론 세상에서 가장 긴 롤러코스터, 하늘 높이 솟아오를 수 있는 트램폴린은 물론 기절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귀신의 집을 즐길 수 있고, 온 우주를 통틀어 가장 맛 좋은 솜사탕까지 맛볼 수 있다! 에밀리가 밤마다 잠을 청하는 곳은 징크스, 오헤어의 사무실 바로 옆에 있는 낡은 헛간의 지붕 위. 사실 에밀리는 그곳에 버려진 알로 발견됐고, 혼자 힘들게 알에서 깨어난 순간부터 두 사람을 따라다녔다. 매일매일 시계처럼 정확한 수리 일정이 돌아가고, 에밀리는 이곳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

그런데 놀이동산이 이대로 계속 운영될 수 있는지 판가름 나는, 무시무시한 정기 검사가 다가오면서 큰 위기가 닥친다. 놀이동산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려면, 에밀리가 나서야 한다! 놀이동산에 몰래 숨어 살던 괴물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보기보다 훨씬 더 무서운 놀이기구들도 본색을 드러낸다. 에밀리는 유일한 집이자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이 공간을 무사히 지켜낼 수 있을까? 왜 갑자기 솜사탕이 괴물로 변하고, 중력이 엉뚱하게 작용하여 놀이기구를 고문기구로 바꿔버렸는지 그 비밀을 풀기 위해 에밀리가 벌이는 고투는 기발하고 흥미진진하다.

<저자 소개>

필립 리브(Philip Reeve)는 바링턴 해안 근처에서 나고 자라며 다섯 살 때부터 모험 이야기를 썼다. 카네기 메달 수상작 『Here Lies Arthur』와 『Mortal Engines/Predator Cities』 시리즈, 『Fever Crumb』 시리즈 등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새라 맥킨타이어(Sarah McIntyre)는 아동 그림책과 만화책에 글과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해 왔다. 필립 리브와 함께 『Oliver and the Seawigs』, 『Cakes in Space』 등 특유의 재기 발랄한 유머와 액션이 담긴 그림책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